

# 백용성 대각사상의 생사관 연구

문헌공\*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대각사상의 죽음 정의
- III. 생사 발생의 과정과 배경
  - 1.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
  - 2. 사(死) 후 생(生)의 발생과정
- IV. 생사해결의 문제와 수행
  - 1. 생사문제 해결의 교리적 배경
  - 2. 생사해결의 수행방법
- V. 나가는 말

---

\*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 『大覺思想』 제31집 (2019년 6월), pp.157-190.

## 한글요약

근대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용성은 대각사상을 강조하며 이론을 정립함과 동시에 현실 속에서 실천했다. 대각(大覺)은 도처에 편재하는 법성(法性), 정각, 석가모니불 등을 의미하는데 본 글에서는 법성에 초점을 두고 대각사상의 생사관을 탐색했다.

본문에서는 먼저 대각의 죽음정의를 알아보았다. 대각사상에서 죽음은 호흡정지 및 사대(四大)의 붕괴라는 육체적 기능의 정지를 포함해 유가의 관점을 빌려 혼백(魂魄)의 분리라 정의된다. 그러나 용성은 생멸심과 진명심(眞明心)의 두 차원을 들면서 단멸론과 상주론을 부정하고 육체는 생멸하나 진명심은 생멸하지 않는다고 죽음을 정의한다.

둘째로, 대각사상의 윤회설과 사후생의 상속과정을 보면서 생사발생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용성은 윤회가 업력으로 인해 일어나는데 내생처는 사망시의 체온의 이동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체온의 흐름이면서는 식의 작용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후생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육신이 소멸하면 정묘색근(淨妙色根)이 상속의 의지처가 되고 아뢰야식의 토대위에 선악의 종자가 이숙되고, 중음신이 종자들을 품고 상속이 진행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용성은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무명의 작용일 뿐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대각의 생사해결에 대한 관점을 이론과 실천적 측면에서 탐색했다. 용성은 생사의 원인이 습관으로 인한 업력 때문이며 이는 무명에서 연유한다고 언급한다. 그는 무명의 작동원리를 기신론 사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무명을 넘어 생사가 없는 대각본연성(大覺本然性)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실천적 측면은 「임종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용성은 평상시의 수행이 임종시에 그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수행한 습기(習氣)의 힘을 통해 임종시 일어나는 여러 상들의 원인을 직시하면 생사해탈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생전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수행했던 힘은 임종시에 발현되며 또한 임종 이후 깨침에 이르게 할 동력이 될 것이라 말한다.

## 주제어

대각사상, 용성, 생사관, 죽음, 임종, 윤회, 생사해탈

## I. 들어가는 말

용성선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대각(大覺)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대각사상을 정립하고 이를 독립운동과 관련지었으며 ‘대각교’라 명명하여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해 사상의 현실화를 이룩하기도 했다. 그가 대각이라는 말을 대표적인 언어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깨달음을 증득하고 체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각이라는 말은 붓다가 이룬 정각을 의미하지만 용성선사는 자신의 깨달음이 진짜임을 확신했고 이를 사회에서 현현시키는 방법을 대각에서 찾고자 하였다.<sup>1)</sup>

용성의 대표적인 저서 『각해일륜』에서는 대각을 세 가지 측면에 나누어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바다 같은 깨달음의 성품(覺海性)은 맑고 원만하며 오묘하다. 허공이 대각(大覺)에서 생겨났으니 이는 마치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유루(有漏)의 미진과 같은 수많은 국토가 모두 허공에서 생겨나는 것이다<sup>2)</sup>’고 말했다. 또한 대각의 본연심성은 말이나 형상으로 보여 줄 수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라 말하면서 ‘이 본성은 이름과 모양이 없지만 과거와 현재를 꿰었으며 천지 세계보다 먼저 있어 시초(始初)가 없고 천지가 마친 뒤에도 있어 종말(終末)이 없고, 생멸(生滅)도 없다’고 설명한다.<sup>3)</sup> 각해일륜에서 말하는 대각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만물을 생성시키며 도처에 편재하는 법성신(法性身) 즉, 불성(佛性)인 것이다.

두 번째로 대각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다시 말해, 더 없는 최

1)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大覺證得과 點檢에 관한 연구」, 『大覺思想』 11집, 대각사상 연구원, 2008, p.208.

2) 용성 저, 이재수 옮김, 『각해일륜』,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296.

3) 대각은 ‘대원각성(大圓覺性)’으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원각경』의 내용과 관련된다. 용성은 그의 역서인 『대방광원각경』에서 대원각성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용성 저, 김종인 옮김, 『대방광원각경』,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4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448-451을 참조하기 바란다.

고의 깨달음을 뜻하는데 용성은 대각에서 대해서, ‘각(覺)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각(本覺), 시각(始覺), 구경각(究竟覺)이 원만하여 둘이 아닌 것(無二)을 말한다.’<sup>4)</sup>, ‘대각의 근본적인 심성(心性)을 깨치는 것 즉, 스스로 깨닫고(自覺) 남을 깨닫게 함(覺他)이 둘이 아니어서 원만圓滿하기 때문에 구경각(究竟覺)이라고 하는 것이다.’<sup>5)</sup>라 언급한다. 이에서 볼 때 대각은 정각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대각의 의미에 대해 용성은 “어찌하여 대각교(大覺教)라고 이름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우리 교의 원조 성호가 본래 ‘대각능인적묵각’이기에 대각교라 하였다.”<sup>6)</sup>라 답하면서 대각의 의미가 석가모니불을 뜻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각의 의미를 정리하면 대각은 불성, 정각, 석가여래의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대각의 세 가지 의미 중 불성에 초점을 두고 대각사상의 생사관을 살피고자 하며 대각사상은 『백용성 대종사 총서』를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sup>7)</sup> 특히, 본 글에서는 총서에서 번역문 및 영인본을 제외하고 용성선사의 대각사상이 잘 드러난 1권과 2권의 「용성선사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심조만유론」, 「각해일륜」, 「심조만유론」, 「불교입교

4) 용성 저, 이재수 옮김, 앞의 책, p.296.

5) 앞의 책. p.302.

6) 용성은 저서에서 ‘대각능인적묵각’(석가모니불에 대한 번역)에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 교의 원조는 능인적묵각(能仁寂默覺)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능인이라고 하는가? 능인 이라고 하는 말에서 ‘능(能)’은 선권방편(善權方便)에 능하다는 말이고, ‘인(仁)’은 자비심(慈悲心)이 광대하다는 말이니,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다. ‘적묵(寂默)’은 큰 지혜(智慧)로 이치를 밝힌다는 말이니, 꿰뚫어 말하자면, 고요히 항상 비추고 비추어 항상 고요하여 고요함과 비춤이 함께 원만하다는 뜻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능인적묵이라고 하며, ‘각(覺)’은 능소(能所)와 모든 상대(對對)가 끊어졌지만, 모든 법을 깨달아 뚜렷이 비춘다는 뜻이니, 이것을 대각성인의 법호(法號)라 한다.”, “지금(1929)으로부터 2천 956년 전에 인도 가바라국에서 탄생하셨음을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다.”, 앞의 책. p.302.

7)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의 지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과정을 거쳐 발간되었다. 총 20권의 전집으로 1권부터 7권까지는 용성선사의 저서와 역서를 수록했고 8권은 총 목차 및 색인, 9권부터 20권까지는 영인본이다.

문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문헌들을 통해, 죽음의 정의, 윤회, 생사발생의 과정, 생사문제 해결의 근거와 수행 등을 논의할 것이다.

## II. 대각사상의 죽음 정의

생사관을 탐색하는 과정의 첫 단계는 죽음의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될 수 있다. 용성은 『용성선사어록』에서 “사람이 태어날 적에는 흙·물·불·바람 사대四大가 화합하여 이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 죽을 적에는 흙·물·불·바람 사대가 모두 과거의 항상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up>8)</sup>라 했다. 이는 태어나며 육신을 이룬 물질[四大]이 붕괴되면서 생리적 안정성을 잃고 생존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 정의한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죽음이 ‘항상성을 잃고 변이되어 오온(五蘊)이 파괴되고 수명이 끊어진 것’<sup>9)</sup>으로 정의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죽음이 육신의 기능이 다해 생존을 지속시킬 수 없는 상태라 보는 관점은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용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 몸의 내외 장부는 패종시계의 기관 전체와 같고, 사람이 내쉬고 들이쉬는 호흡은 패종시계의 추가 추간 거리를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 시계추가 한번 멈추면 모든 시계장치가 다 멈추고, 사람의 호흡이 한번 멈추면 모든 신체기관이 다 멈춘다. 중생들의 삶이 여기에서 마칠 뿐이다.<sup>10)</sup>

8) 동산해일 찬집, 금천 율김,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134.

9) 『增一阿含經』(大正藏 2, 797c), “無常變異 五親分張 捨五陰身 命根斷壞 是謂爲死.”

10) 동산해일 찬집, 금천 율김, 앞의 책, p.134.

인체기관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폐와 심장으로 심폐의 기능 상실은 전체 신체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이어진다. 호흡정지로 인해 심정지에 이르는 경우를 폐장사(lung death), 심정지에 의해 호흡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심장사(cardiac death)라고 구분한다.<sup>11)</sup> 위 인용문의 내용 또한 호흡이 정지하면 혈액의 순환이 멈추고 뒤이어 다른 장기들이 기능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으로, 의학에서 정의 하는 심폐사(心肺師)와 같은 내용이다. 이는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것을 죽음으로 보는 의학이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용성은 이에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죽음정의의 의미를 확장한다.

혼의 정수는 바람과 불의 기운으로 일반 사람이 죽을 적에 바람과 불, 이 두 가지 요소가 먼저 상승하여 떠나간다. 혼의 바탕은 흙과 물의 기운으로 일반 사람이 죽을 적에 이 차디찬 덩어리인 부정물(不淨物)을 여월 뿐이다. 유교에서 ‘혼은 상승하고 백은 하강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sup>12)</sup>

용성은 혼을 이루는 구성물이 불, 바람, 흙, 물이며 죽음에 이르면 불과 바람의 기운은 상승하고 흙과 물의 기운은 하강한다고 말하면서 유교의 사상을 언급했다. 사망과 혼백의 관련성은 유가의 대표적 문헌인 『예기(禮記)』에서도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기(氣)가 있고 백(魄)도 있으니 기는 신(神)이 성한 것이다.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며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니, 이를 일러 귀(鬼)라고 한다. 혼(魂)과 기는 하늘로 돌아가는데 이를 신(神)이라 한다.”<sup>13)</sup>고 말한다. 혼(魂)과 백(魄)은 ‘넋’을 의미하는데, 혼은 죽음에 이르면 하늘로 올라가서 신(神)이

11) 남상욱, 「뇌사와 심폐사 그리고 장기이식」,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2, 대한소아과학회, 2009, p.856.

12) 앞의 책, p.135.

13) 『禮記』「祭義」, “人生有氣有魄 氣者神之盛也 衆生必死 死必歸土 此謂鬼 魂氣歸天 此謂神.”

라 불리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귀(鬼)가 된다고 말한다. 유교에서 혼은 정신적 기능의 본질이고 백은 육체적 기능의 본질로 보며<sup>14)</sup>, 혼백, 귀신, 생사 등에 관한 문제를 기의 취산(聚散)이나 음양의 작용으로 본다. 또한 『주역(周易)』에서는 “시초를 근원으로 해서 끝을 돌아본다. 이에 따라 죽음과 삶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정기(精氣)가 모여 사물이 되고 유혼(遊魂)이 변화하니 귀신(鬼神)의 정상(情狀)을 알 수 있다.”<sup>15)</sup>고 언급한다. 정기(精氣)는 음양(陰陽)의 응축된 기를 말하고 유혼(遊魂)이란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유가에서는 정기가 뒤엎켜 모여서 사물이 성립되고 이후에는 흩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는 인간의 죽음 또한 자연의 현상 중 하나로 그저 기(氣)가 모였다[聚] 흩어진다[散] 현상으로 이해하며 사후에 닳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혼불멸설’은 인정하지 않는다.<sup>16)</sup>

이러한 유가의 견해에 대해 용성은 “마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명심(眞明心)이고 다른 하나는 육단생멸심(肉團生滅心)이다. 진실하며 밝은 마음인 진명심은 생멸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생멸하는 육체의 마음인 육단심은 혼백의 정수이다.”<sup>17)</sup>라 하며 유교의 생사관에는 생멸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 『용성선사어록』의 후반부에 있는데, ‘천지간의 만물과 생명의 종류가 기가 모이면 생성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데, 나무가 재가 되고 나면 다시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혼과 백이 이미 흩어져 버렸다면 어떤 사물이 다시 생성 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용성은 이것은 단멸론을 주장하는 외도의 견해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 미치하타 료오슈우 저, 최재경 옮김, 『불교와 유교』, 한국불교출판부, 1991, pp.153-154.

15) 『周易』, 「繫辭」,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16)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7, pp.48-49.

17) 동산해일 찬집, 금천 옮김, 앞의 책, p.134.

육체적인 업보(業報)의 몸은 인연 따라 옮겨가고 쇠퇴하지만 그대의 법성(法性)의 몸은 본래 생성과 소멸이 없고 ... 그대의 진심은 변하지 않아서 허공처럼 소멸하지 않는다. ‘나무가 재가 되고 나면 다시는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대의 육체 속의 생멸하는 마음일 뿐이다. ... 음양은 진실로 사람이 의뢰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음양이 화합하면 생을 받고 음양이 흩어지면 죽음에 나아가니 진실로 음양이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밝은 마음은 형체를 따라 생성되지도 않고 형체를 따라 죽지도 않아서 비록 천만 가지로 변화하지만 깊고 고요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sup>18)</sup>

죽음이 기의 흩어짐일 뿐이며, 죽음은 끝이라고 보는 유가의 입장에 대해 용성은 법성의 본질과 진명심을 제시하며 단멸론을 부정한다. 음양의 화합과 해체를 인정하긴 하지만 진명심은 고요히 홀로 존재하며 생멸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용성의 관점은 『대승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 사상에 담겨있다. 일체의 상대가 없는 일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나오는데 생멸문은 연을 따르는 작용으로 오염과 청정, 성인과 범부, 생과 멸 즉, 삶과 죽음 등을 발생시키나 진여문에는 이름, 모습, 생멸 등 일체의 분별이 없기에 죽음이 끝이라는 주장 혹은 죽음 그 자체 또한 부정되는 것이다. 모든 법이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 생과 사라는 차별, 분별이 있으나 망념을 떠나면 모든 경계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sup>19)</sup> 그렇다면 용성은 상견(常見)을 주장하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마음까지 일체가 한 줌의 재와 같아서 완전히 생전, 사후와 현재가 다 없어져 버리며 나무나 돌과 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은 단멸외도들이다. 이 말을 듣고 외도들의 견해를 따르지 말라. 또 혹 어떤 사람들은 모두 있는 것만 주장하나 이것

18) 앞의 책, pp.305-306.

19) 용성 역주, 현석 옮김, 『대승기신론』,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4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623-624.

들은 상견외도이므로 그러한 말에 속지 말라. 혹 어떤 사람들은 인과가 없다고 하니 현재 우리가 보아도 사람의 선과 악의 인과가 분명한데 어찌하여 인과가 없을 것인가? 이것이 다 올바른 말이 아니다. 삼계유심(三界惟心) 만법유식(萬法惟識)이라고 하셨으니 어찌 분명하지 않겠는가?<sup>20)</sup>

위의 인용문에서 용성은 단멸론, 상견론을 모두 부정하고 ‘분별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대각사상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했던 사대의 상실이나 호흡의 정지 같은 신체 기능의 정지를 포함해서, 진여심과 생멸심을 제시하며 육체는 생멸하나 진명심은 생멸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차원으로 죽음을 정의하고 있다.

### III. 생사 발생의 과정과 배경

#### 1.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

쉽 없이 떠던 심장이 멈추고 사망하게 되면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중생은 인과의 도리에 따라 내생처로 이동할 것이다. 만약 지독한 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각해일륜』에서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옥에 가는 중생은 업력이 무겁다. 그가 목숨을 마칠 때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죽는구나. 부모 친척과 벗과 영원히 이별하니 나의 근심을 어찌하리오?’라 한다. …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발은 위로 향하고 머리는 아래로 꺼꾸러진다. 그의 식(識)은 한곳을 향할 뿐이니 순전히 피(血)

20) 용성 저, 한제인 옮김, 『오도의 진리』,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665.

바다만 있는 곳이다. 그의 업력 때문에 피를 마시고자 원하고, 피 맛에 애착하기 때문에 급히 따라가다 보면 곧 지옥에 나는 것이다. … 비유하자면 썩어서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곳에 벌레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sup>21)</sup>

업력은 인력(因力)이 되어 악업자는 사후에 그와 걸 맞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옥에 가는 자는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아비달마구사론』에도 같은 내용<sup>22)</sup>이 있는데 그러한 견해는 기존의 경전들을 참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성은 이와는 반대로, 지옥에서 자신의 업을 소진하고 인도(人道)에 태어난 경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만일 지옥의 업을 마치고 인간에 태어난 자라면 유아 때부터 늙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정을 살펴 그 습성을 세심하게 관찰하면 지혜로운 자는 가히 알 수 있다. 그러한 자의 음성은 말이나 노새의 소리를 내고 바쁘고 급한 소리이며, 두려워하는 소리이고, 고성이며 가는 소리이다. 혹은 소심하여 항상 무서워하여 자주 전율하며, 그 털이 촘촘하고 곧으며, 꿈속에 큰 불이 세차게 일어남을 자주 보거나, 산이 달려가는 것을 보거나, 항상 불지옥을 보거나 … 또는 개 떼를 보며 코끼리 떼가 자기 몸을 쫓아오는 것을 보며, 자기 몸이 사방으로 달려감에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을 본다.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적어서 친구가 없다. 이 같이 갖가지 모습이 많으니 이것을 지옥에서 인간에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sup>23)</sup>

용성은 사망 직후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차생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용성선사어록」에 나타난다.

21) 용성 저, 이재수 옮김, 앞의 책, p.348.

22) ‘지옥으로 떨어질 때에는 발을 위로하고 머리를 밑으로 돌리니,’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29, p.46c), “顛墜於地獄 足上頭歸下”.

23) 용성 저, 한성자 옮김, 「십조만유론」,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271.

사람은 목숨이 끊어진 뒤에 첫 번째로 체온이 떨어지는 곳에서 선업과 악업을 판단하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본래 목숨을 유래한 실마리가 식심(識心)을 떠나기 때문이다. ... 심식이 향하는 곳으로 바람과 불, 두 가지 요소가 자연히 심식을 따라가서 몸을 떠나며 흩어진다. 선업은 체온이 배꼽에서 정수리까지 도달하고 악업은 체온이 배꼽에서 발바닥까지 도달하는데, 사지가 뻗뻗해지며 차가워져서 점점 체온을 거두어들이면 체온이 가장 늦게 떨어지는 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다.<sup>24)</sup>

사망 후에는 불과 바람의 요소가 심식의 이동에 따라 옮겨가는데, 생전의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체온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며 이를 통해 내생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리에 대해 용성은 ‘마치 탁한 물을 그릇에 담아 방에 가만히 놓아두면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맑은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이 비유에서 그릇은 중생의 근기를, 물은 중생의 심식을 상징하며 탁한 것은 악업을, 맑은 것은 선업을 의미하고 내려가는 것은 중생이 악도에 생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중생이 선도에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sup>25)</sup> 이에 더해 용성은 ‘업이 두터운 자는 체온이 아래에서 거두어지고, 업이 얇은 자는 체온이 위에서 거두어진다’고 말하며 체온의 이동을 관찰하면 육도 중 태어날 곳을 알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다.

체온이 배꼽에 이르러서 떨어지는 자는 인도(人道)에 태어나고, 체온이 단전 위에 이르러서 떨어지는 자는 축도(畜道)에 태어나고, 체온이 단전 아래에 이르러서 떨어지는 자는 아귀취(餓鬼趣)에 태어나고, 체온이 발바닥에 이르러서 떨어지는 자는 지옥취(地獄趣)에 태어난다. ... 아울러 배꼽에서부터 위가 있는 중완(中腕)과 가슴 부분에 이르러서 체온이 떨어지는 자는 천상세계인 천취(天趣)에 태어나며, 얼굴 부위로부터 정수

24) 동산해일 찬집, 금천 율김, 앞의 책, pp.135-136.

25) 위의 책, p.136.

리에 이르러 체온을 마치는 자는 부처와 조사와 성인들이 해탈 자재하여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고 증득에 돌아가는 것이다.<sup>26)</sup>

체온이 배꼽에 머무르다 사라지면 인간계, 단전에서 사라지면 축생계, 단전 아래에서 사라지면 아귀계, 발바닥에서 사라지면 지옥계에 생하며, 반대로 체온이 배꼽에서 위(胃)를 거쳐 가슴부분에서 떨어지면 천상계에 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체온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사라지는 지점에 따라 내생처가 결정된다는 관점과 유사한 내용이 『유가사지론』에도 있다. 경에서는 “악업(惡業)을 지은 사람은 식(識)이 소의(所依: 신체)의 위쪽부터 버리게 된다. 즉 위쪽부터 식기 시작하여[冷觸] 점차 버려서 심처(心處: 심장)에 이르게 된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식(識)이 소의(所依)의 아래쪽부터 버리게 된다. 즉 아래쪽부터 식기 시작하여 이렇게 점차로 버려서 마침내 심처에 이르게 된다.”<sup>27)</sup> 이는 용성이 말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온이 아래로 하강해 식으면 악도에 태어나고, 위쪽으로 상승해 식으면 선도에 태어난다는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

체온의 흐름에 따라 내생처가 결정된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체온의 흐름에만 주목하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온의 흐름 그 이면에는 좀 더 깊은 작용의 체가 있는데 그것은 ‘식(識)’이다. 용성은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 때 어디로 태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떤 것이 선도(善道)와 악도(惡道)를 현전시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선도와 악도는 오직 식에 의해서만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식의 물결이 맑은 자는 영묘한 식이 천상에 올라가서 모든 하늘에 화생(化生)하고, 식의 물결이 탁한 자는 영묘한 식이 아래로 가라앉아 지옥에 화생하는 것이다.”<sup>28)</sup>라고 대답한다. 이는 위 문단에서 언급한 『유

26) 앞의 책, pp.136-137.

27) 『瑜伽師地論』(大正藏30, p.281b), “作惡業者 識於所依從上分捨 卽從上分冷觸隨起 如此漸捨乃至心處 造善業者 識於所依從下分捨 卽從下分冷觸隨起 如此漸捨乃至心處 當知後識唯心處捨 從此冷觸遍滿所依”

28) 용성 저, 금천 옮김, 앞의 책, p.137.

가사지론』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에서는 죽음 이후 악업자의 식은 신체의 위쪽부터 아래로 향하면서 사라지는데 신체 또한 위에서 아래로 차가워지고, 선업자의 식은 아래부터 위로 향하며 사라지고 신체 또한 아래부터 위쪽으로 차가워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에서 볼 때 체온의 사라짐은 식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생처를 알 수 있는 것은 체온의 흐름이고 그 이면에는 식의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한층 더 나아가 식의 움직임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서 지옥에 태어날 자는 머리가 땅으로 향하고 발은 위로 향하며 체온은 발바닥에서 사라지며 식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지옥은 악도(惡道) 중에서도 극악자들의 내생처이며 불교 뿐 아니라 타 종교의 내생처이기도 하다. 그러나 타종교에서 지옥에 태어남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은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지만 불교에서는 업, 습기(習氣)가 조건이 된다. 체온의 사라짐은 식의 흐름이 조건이 되고, 이러한 식의 흘러감은 또한 업과 그 습기가 조건이 되는 것이다. 용성은 「귀원정중」에서 타종교에서는 지옥이 지하에 있고, 신을 등진 자가 떨어져 별을 받는 곳이라는 등의 견해를 비판하면서<sup>29)</sup> 지옥에 태어나게 되는 인과는 “일체 세간에 생사가 상속하여 습기(習氣)를 따름으로 인해 태어나고 변화의 흐름으로 인해 죽는다. 목숨이 끝날 무렵 따뜻한 감촉이 아직 남아 있을 때에 한평생 지은 선과 악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죽음을 거역하고 삶을 따르려는 두 가지 습기가 서로 뒤섞인다.”<sup>30)</sup>라 말한다. 사망시에는 생전에 지은 선업과 악업이 나타나는데, 이는 습기에서 연유한다는 언급에서 볼 때 결국 죽음 이후 내생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업력인 것이다. 그러나 업력에 따라 내생이 결정된다는 내용은 불교만이 가진 특색이거나, 불교사상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29) 용성 저, 신규탁 옮김, 「귀원정중」,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1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560-562.

30) “一切世間이生死相續야生從順習고死從變流나니臨命終時에未捨煖觸할一生善惡이俱時頓現야死逆生順이라二習이相交나니라.”, 앞의 책, p.563.

것이다. 한층 더 깊이, 불교적 관점에서 죽음의 문제를 사유해 볼 점은 업력에 의한 인과보다 사(死)의 원인이 되는 생(生)의 문제, 다시 말해 생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사(死) 후 생(生)의 발생과정

앞서 대각사상의 관점을 통해 내생처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생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받게 되는가. 「각해일륜」에는 이와 관련된 문답이 있다. ‘육신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을 때 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란 질문에 용성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사람이 죽을 때 사대로 조직된 육체가 활동하면서 운전(運轉)하는 바람 기운과, 따뜻한 불 기운은 위로 떠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찬 몸뚱이만 남아 썩어서 물이 되고 흙이 되고 만다. 그때는 싱그러운 신식만 남아 있게 되는데 이 신식(神識)은 비록 형체가 없으나, 이에는 ‘청정하고 오묘한 색근[淨妙色根]이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범부가 대단히 알기 어렵다. 모든 귀 신이 다 청정하고 오묘한 색근을 의지하여 보고 듣고 아는 것이다.<sup>31)</sup>

즉, 죽음 이후에 신체를 구성하는 사대(四大) 중 화(火), 풍(風)의 기운은 상승해 날아가고 차가워진 사체의 지(地)와 수(水)의 기운은 편입된다. 용성은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떠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묘색근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꿈속에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見聞覺知], 그리고 말하고 움직임[言語動作] 등이 깨어있을 때와 다르지 않다고 비유하면서, 실제로 육경(六境)이 없으나 꿈속에서 육식이 작용 가능한 이유는 정묘색근에 의한

31) 앞의 책, p.337.

것이라 말하며<sup>32)</sup>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신식(神識) 자체는 바람과 같아서 분명히 있지만 형체는 없는 것이니, 산하석벽(山下石壁)이 걸림 없어서 순식간에 천리만리를 가는 것이다. 새로운 몸을 받기 전에는 이 신식이 법계의 바탕(法界體)에 머물러 오직 생각하는 힘만 있다. 이 신식이 인연을 따라 몸을 받아 태어나는 [受生] 것이니, 십만까지라도 몸을 받아 태어날 인연이 있으면 순식간에 당도하는 것이다.<sup>33)</sup>

용성은 위 같이 말하며 정묘색근을 토대로 다음 생을 이어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식(識)을 언급한다. 마치 종자가 있어야 싹이 날 수 있듯이 식이 있어야 육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sup>34)</sup>, 신식이 죽음에 이르러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서면 거울에 얼굴이 나타났다가, 다시 강물 앞에서면 강물에 얼굴이 다시 나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신식(神識)<sup>35)</sup> 즉, 아뢰야식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 그러한 식의 옮겨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sup>36)</sup> 「청공원일」에는 이러한 신식이나 아뢰야식 같은 용어의 출처인 유식불교를 통해 사후 생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용성은 윤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12처와 6식의 작동으로 인한 탐, 진의 작용이 선업과 악업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면서<sup>37)</sup>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2) 앞과 같음.

33) 앞의 책, pp.337-338.

34) 용성은 식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식이라 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종자(種子)가 있으므로 싹이 날 수 있는 것과 같아서, 식이 있으므로 육체를 나게 하는 것이다. 지혜로부터 식이 나기 때문에 이름을 생각이 라고 한다. 신식 자체가 뚜렷이 있으므로 자타의 구별이 있게 되었다. 괴로움(苦)과 즐거움(樂)과 선과 악의 모든 경계를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고 설명한다. 위의 책, p.338.

35) 신식은 제8식인 아뢰야식의 준말이며 용성은 아뢰야식을 아뢰야신식(阿賴耶神識)이라 칭한다. 용성 저, 금천 율감, 앞의 책, p.180.

36) 위와 같음.

선과 악 등의 여러 업을 지을 때에, 오직 안·이·비·설·신 등 안에 있는 ‘소의(所依)의 근(根)’에 다섯 종류의 ‘능의(能依)의 식(識)’이 마치 ‘맑은 거울’이 ‘대상 경계’와 만나는 것처럼, 비록 ‘대상 경계’를 비추는 기능은 있지만 분별이 없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의 식인) ‘의식(意識)’이 발동하여 여러 대상 경계의 차별상을 ‘뚜렷하게 분별(了別)한다. 제6식과 제7식이 지은 갖가지 업을 제8아뢰야식이 ‘본래의 바탕(自體) 내부로 혼습해 들여 머금어 저장하기 때문에 이를 또한 (제8식을) ‘함장식(含藏識)’이라고도 이른다. 또, 인과 연이 서로 만날 때에 종자(種子)를 산출하여 갖가지의 선과 악의 여러 업의 과보를 만들기 때문에 또한 ‘종자식(種子識)’이라고도 이르고 또 모든 ‘식’의 본바탕이기 때문에 또한 ‘심왕식(心王識)’이라고 한다. 또, 혹은 원인을 짓자마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삼 년 뒤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금생에 업을 짓고 내생에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의 경우는 업을 짓고 다른 부류의 중생으로 태어나서 과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숙식(異熟識)’이라고도 이른다. (이렇게) 각각 그 익힌 바에 따라 (지은 업의) 무거운 쪽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윤회하기도 한다.”<sup>38)</sup>

37) “안으로 육근六根이 있는데, 안·이·비·설·신·의가 그것이며, 밖으로 육진(六塵)이 있는데, 색·성·향·미·촉·법이 그것이다. 안의 육근과 밖의 육진이 서로 만나면 육식六識이 그 속에 생기니 이것이 십팔계十八界이다. 이 십팔계가 화합해서 대상 경계가 (자기와) 맞으면 아끼는 마음을 내고, 대상 경계가 (자기와) 맞지 않으면 진노해서, 진노함과 기뻐함, 옳고 그름이 불같이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과 소멸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선과 악의 갖가지 업을 짓지 않은 적이 없다.” 용성 저, 신규탁 옮김, 『청공원일』,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1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737

38) “作是善惡諸業之時에唯眼耳鼻舌身之內分所依根에能依之五識은如明鏡之對境하야雖有照境이나無所分別이라가因意識之發動야了別諸境之差別也니라. …六七二識之所作諸業을八識이受熏自體之內하야含藏故로亦名含藏識이라하고因緣會遇之時에産出種子야成種種善惡諸業之果故로亦名種子識이라하고, 又諸識之本故로亦名心王識이라하고或有即因即果者하며或有二三年後에受報者하며或有今生에造業하야來生에受報者하며或有人中에造業하야異類中에受報者故로亦名異熟識이라하나니各隨其所習하야重處偏墜也니라.”, 위의 책, pp.738-739.

용성은 유식의 견해를 빌려서 5근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제6식의 발동으로 차별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제6식과 제7식으로 인해 생산된 업이 혼숙되어 제8식에 저장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저장된 선악의 종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익어가는 것[異熟]이 차생을 구성하는 바탕원리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청공원일」에서는 ‘사람들이 닦은 선악은 임중에 즈음하여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 업을) 휴대하여 가는가?’라는 질문에 용성은 향나무 숲 사이에 바람이 부는 경우처럼 바람은 형체가 없고 향기를 질료가 없지만 바람이 향냄새를 휴대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과 같이, 선업과 악업에 있어서도 선악 자체에는 ‘질료’가 없고 ‘식’ 또한 ‘형체’가 없지만 아뢰야식이 무형의 선악을 품어 다른 생으로 옮겨 선악의 과보를 받게 한다고 답한다.<sup>39)</sup>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악의 종자를 품어 다른 생으로 옮기는 것일까. 불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는 ‘중음신(中陰身)’일 것이다.

「각해일륜」에는 중음신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sup>40)</sup> 중음신도 생사가 있

39) 용성은 “비유하면 마치 일년생 화초가 봄에 꽃 피어 (여름에)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여 봄과 여름의 정기를 모두 갈무리하여, (가을에) 가지마다 열매를 맺다가, 바람에 날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다음 해에 봄의 인연을 만나 다시 발아하는 것과 같다. 사람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일생 동안 지은 업의 원인과 결과를 거두어들여, 심왕(心王)이라는 ‘마음 밭[心田]’에 심어 두었다가 사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가 인연을 만나면 발생하여 스스로 ‘몸뿌이[身根]’를 낳아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라고 비유를 추가하며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앞의 책, p.739.

40) 「각해일륜」에서 용성은 ‘중음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본원각성은 본래 중음신이 없다. 유정동물은 날날이 업혹(業惑)의 습기(習氣)가 맺혀서 중음신이 있게 되었다. 비유하자면 강물은 본래 얼음이 아니지만 태양의 찬(寒) 기운으로 인하여 얼음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사실상 중음신의 ‘실체’는 부정한다. 그러나 윤회하는 중생의 업과 습기 때문에 중음신이 있다고 말하며, 또한 “유정동물이 다 죽을 때에 이 육체는 버리고서 저 새로운 육체를 받지 못하였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음(陰)이라고 하는 말은 색수상행식이 묘명진성(妙明眞性)을 그늘로 하여 가리기 때문에 이름을 음이라 하는 것이니, 이것을 두루(通) 합하여 중음신이라고 한다.”라고 중음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성 저, 이재수 옮김, 『각해일륜』, 『백용성 대중사 총서』 2권, pp.332-333을 참조하기 바란다.

는가라는 질문에 용성은 “(중음신의) 생사는 인간과 같다. 중음신이 업보를 벗고 타처에 나는 경우, 귀신들 가운데 없어지면 귀신이 죽은 것이 되고, 또 옮겨 가는 곳은 다시 나는 곳이 된다. 그러나 죽은 자의 편에서 보면 다시 난다는 것이 꿈이고, 나는 자의 편에서 보면 죽는 것이 곧 꿈이니 삼계육도(三界六途)가 모두 다 몽환(夢幻)이다.”<sup>41)</sup>라 말한다. 이는 죽음 이후 육신을 버리면 중음신이 나게 되고, 내생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면 중음신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중음신의 나고 죽음도 인간의 생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음신이나 인간의 생사가 결국은 꿈이며 환상이라 말한 것은 중음신 등이 대각의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이다. 용성은 내생, 중음신, 귀신 등 죽음과 윤회 등을 사유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을 드러낸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용성선사어록』에서 그는 『선가귀감』의 구절을 들면서 “옛날에 어떤 도인이 말씀하기를, ‘만일 임종할 때에 터럭만큼이라도 범부니 성인이니 하며 헤아리는 망정이 아직 다하지 못했다면 나귀의 태반과 말의 배 속에 들어갈 것이다’<sup>42)</sup>라 했다.”고 언급한다. 이는 임종시의 ‘분별’이 생사문제에 있어서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분별심은 무명(無明)에서 나온다. 『각해일륜』에서는 ‘죽음은 생이란 인(因)의 과(果)이며 생은 유(有)의 과이며 유는 취(取)의 과이며 … 식(識)은 행의 과이며 행은 무명의 과이다’<sup>43)</sup>라 하여 죽음의 문제는 생에서 비롯되었고 생은 유에서 연유하며 결국 무명에서 비롯되었음을 십이연기법을 통해 밝히고 있다. 무명으로 인해 ‘생과 사’를 발생시키는 ‘분별심’이 작동하게 되고 죽음이 일어난다. 이에서 보면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인 생이며 생의 발생 또한 궁극적으로는 무명 때문인 것이다.

살피본 바와 같이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 사후 다시 생을 받는 과정

41) 앞의 책, pp.333-334.

42) “若人(사람)이 臨命終時(임종할 때)에 若一毫라도 凡聖情量(범승정량)이 未盡(미진)이면 入驢胎馬腹裏去也(리라)”(『禪家龜鑑』 75)

43) 용성 저, 이재수 옮김, 앞의 책, p.399.

등을 알아보는 것은 생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죽음과 삶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면 죽음에 대한 극복의 방법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대각사상의 관점과 더불어 실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V. 생사해결의 문제와 수행

##### 1. 생사문제 해결의 교리적 배경

용성은 단순히 죽음이 일어나는 과정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러 저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수행법을 남겨놓았다. 「청공원일」에서 용성은 생사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불의 생명이 나무에 붙어 있다가 나무가 다 타면 불의 ‘생명’은 반드시 죽지만, 불의 ‘사명(死命)’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불의 원성(元性)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그러하다. 한 ‘생명’이 ‘과보로 받은 몸뚱이 [報身]’에 붙어 있다가 늙고 병들면 반드시 사망하지만, ‘사명’이 다시 ‘업성(業性)’으로 되돌아갔다가, 인연을 만나면 따라 생겨난다. … 일체의 생사윤회가 모두 습관 때문에 존재한다. 오로지 습관화된 번뇌와 무명으로 미혹된 업장(業障)만을 제거하면 (생명현상[命根] 속에) 미세하게 흐르는 (업의) 생성과 소멸이 영원히 사라지고, 원각의 위대한 지혜가 밝고 밝게 우뚝 실존해서 생사윤회하는 세계 속에 자유자재한다.<sup>44)</sup>

44) “如火之生命이付於木身이라가燒盡木體하면火之生命은必死로되火之死命은不야還歸火之元性인달야人亦如是하야生命이付於報身이라가老病必死에死命이還歸業性야遇緣隨生也니라. … 一切輪廻生死가皆因習慣而有也니但除習慣煩惱와無明惑業하면微細流注之生이永盡하고圓覺大智가朗然獨存하야於生死界에自由自在하니라.”(용성저, 신규탁 옮김, 앞의 책, p.740.)

용성은 불과 나무, 그리고 육신과 사망을 빚대어 불이 사라진 듯하나, 다시 불의 원성으로 돌아간 듯, 사람도 죽으면 업성으로 돌아간다고 비유했다. 또한 그는 생사윤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며 습관은 곧 업이기 때문에 무명에서 연유한 업장만 제거하면 생명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사해결을 위한 단서가 단순해보이지만 용이한 일은 아니다.

위 인용문의 언급 이후,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소멸해도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듯이 본각인 참 성품이 온 법계에 충만하다면 생사윤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용성은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이 모두 본각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깨친 이는 큰 바탕[大體]과 큰 작용[大用]을 이루어 자유자재하고, 미혹한 이는 만나는 일마다 스스로 얽매어 자유자재하지 못하다.”<sup>45)</sup>고 답한다. 다시 말해, 죽음에 이르러도 본각성이 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파도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듯이 인간도 사망 후 본각성으로 돌아갈 것이라 보면, 굳이 죽음과 윤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란 질문에 용성은 깨친 이와 미혹한 이의 차이를 분명히 두면서 깨달음이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생사를 초탈하기 위한 깨침에 대해 용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유하면 마치 꿈속에 있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마다 모두 꿈이다. 꿈에 부스럼이나 종기가 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꿈 때문에 났다) 실재한다고 여겨 제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다가 홀연히 꿈에서 깨어나면 부스럼이나 종기로 인한 고통이 단박에 없어지는 것과 같다. 깨달음도 역시 이와 같다. 본성을 돈오하면 삼계에 펼쳐지는 ‘큰 꿈(大夢)’도 일시에 모두 사라지고, 생사 윤회하는 세계 속에 자유자재한다. … 영은보제(靈隱普濟) 선사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소멸하는 것을 두고 생사에 윤회한다고 한다. 생사에 윤회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 공안

45) “隨緣生이 皆本覺中事로되 悟之者는成大體大用하여 自由自在하고 迷之者는 觸處自縛하여 不得自在하니라.”(앞의 책, p.741.)

을 들어야 한다. 생각의 일어남과 소멸이 사라진 자리를 고요함(寂)이라고 하고, 고요한 속에서도 공안이 어둡지 않은 것을 신령스러움(靈)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하고 고요하고 신령스런 앎(空寂靈知)<sup>46)</sup>이 무너지지도 않고 (번뇌와) 뒤섞이지도 않으면 반드시 완전한 깨침이 있게 된다'고 하셨다.<sup>47)</sup>

그는 실제로 육체는 어떤 병도, 고통도 없이 잠들어 있지만 꿈속에서 병 들고 고통스러워하다 깨어나면 고통이 사라지듯, 현실의 삶 또한 하나의 꿈이며 깨침을 통해 깨어나면 죽음과 삶이 반복되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은보제의 말을 빌려서 생사의 본질은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공안을 들고 깨쳐야 한다고 생사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가. 앞서 생사의 해결은 습관화된 업에 단서가 있음을 말했고, 업은 무명에서 기원함을 보았다. 따라서 깨달음은 무명에서 무를 타파하고 명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무명이 생사해결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무명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무명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각교의식」에서는 무명의 정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6) 용성은 「귀원정종」에서 공적영지(空寂靈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물의 성품은 촉촉함이고, 불의 성품은 뜨거움이며, 바람의 성품은 움직임이고, 사람의 성품은 앎(知)이니, 이 신령하게 지각하는 앎은 탐내고 성내고 사견을 부릴 때와, 움직이며 작용하는 모든 때와, 상대하는 인연이 없어 고요할 때도, 언제나 이 앎(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람의 성품이라 하는데, 이것은 앎이 없이 앎이다. 앎의 바탕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공적’이라고도 하고, 앎의 바탕이 밝고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앎’이라고도 한다. 이 공적하고 신령하게 아는 것이 바로 부처의 참된 바탕이니, 다시 다른 법은 없다’고 한다.”(용성 저, 신규탁 옮김, 「귀원정종」, p.667.)

47) “譬如在夢者는所見所聞이悉皆是夢이니夢有瘡이면無中成實하야自受苦痛이라가忽然夢覺에瘡之苦가頓無인달하야悟亦如是하야頓悟本性하면三界大夢이一時頓消하고於生死界에自由自在하니라. … 普濟正土云念起念이謂之生死니當生死之際하야盡力提起公案【是什也】이니起即盡處를謂之寂요寂中不昧公案을謂之靈이니如是空寂靈知가無壞無雜하야사必有大悟也라하니라.”(위의 책, pp.741-743.)

어찌하여 무명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이 오면서 가지가지 전도(顛倒)함이 마치 저 미혹한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꾸는 것 같아서 망령되이 사대를 그릇되게 알아 자기 몸을 삼으며, 육진(六塵)에 반연한 영식(影識)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 비유하면 병든 눈으로 공중에 꽃을 보는 것과 같고, 하늘의 달을 두 개로 보는 것과 같으니라. … 망집을 말미암으므로 오직 허공자성만이 미혹할 뿐 아니라 또한 다시 저 실답게 꽃이 나는 곳에도 미혹한다. 이로 말미암아 망령되이 생사에 윤회전생한다. 그러므로 무명이라 이름한다. … 일체 중생이 남이 없는 데서 망령되이 생멸(生滅)을 본다. 이런 까닭에 이름을 생사에 윤회전생한다고 한다.<sup>48)</sup>

무명은 무시이래로 흘러오면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가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리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로 무명에 가려져 생겨남이 없는데 생멸을 보게 하여 생사의 흐름 속에 간혀 윤회전생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임종결」에서는 한 제자가 용성에게 “명을 마쳐서 죽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생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구상차제(九相次第)를 들면서 무명의 발동과정을 설명한다.<sup>49)</sup> 구상은 「임종결」보다 용성의 역서인 「대승기신론」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기신론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깨닫지 못함에 의지하기 때문에 세 가지 모습이 생겨나니 저 깨닫지 못한 것과 상응하여 떠나지 않는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무명의 업상(無明業相)이니, 깨닫지 못한 것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이름한다. 깨달으면 동요하지 않으나 동요하는 원인으로 고통의 결과가 있게 되니, 결과가 원인을 떠나지 않는 때문이다.

48) 용성 저, 이성운 옮김, 「대각교의식」,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503-504.

49) 용성 저, 정혜원 옮김, 「임종결」,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p.468-469.

둘째는 주체적으로 보는 모습(能見相)이니, 동요함에 의하기 때문에 능히 보게 되는 것으로, 동요하지 않는다면 볼 것이 없다. 셋째는 경계의 모습(境界相)이니, 능히 보는 것에 의하기 때문에 경계가 허망하게 나타나지만, 보는 것을 떠나면 곧 경계는 없는 것이다.

경계의 반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섯 가지 모습을 낸다. 첫째는 분별하는 모습(智相)이니, 경계를 의지하여 마음을 일으켜 따르면 좋아하고 거스르면 싫어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속하는 모습(相續相)이니, 분별하는 것에 의하기 때문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나는 것이다. 지각하는 마음이 망념을 일으켜 서로 응하여 끊어지지 않는 때문이다.

셋째는 집착하여 취하는 모습(執取相)이니, 상속에 의해 경계를 반연하여 생각하며 괴로움과 즐거움에 머물러서 마음이 집착하는 때문이다.

넷째는 이름에 집착하는 모습(計名字相)이니, 허망한 집착에 의하여 가명과 거짓된 언설의 모습을 분별한다. 다섯째는 업을 일으키는 모습(起業相)이니 이름에 집착하는 것에 의해 이름을 찾아 집착하여 갖가지의 업을 짓는다. 여섯째는 업에 매어 고통 받는 모습(業繫苦相)이니, 업에 의해 과보를 받아서 자재하지 못하다. 무명이 능히 온갖 오염된 법을 내니 온갖 오염된 법이 다 깨닫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다.<sup>50)</sup>

무명은 위 같은 기신론의 삼세육추(三細六麤)를 통해 그 작동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불각(不覺)으로 인해 세 가지 미세한 마음작용 중 첫째인 무명업상이 움직이면서 무명이 가진 고유의 업력이 발동되기 시작한다. 이후 무명의 업력으로 인해 주관적 주체[能見]가 형성되어 마음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해 객관적 객체[境界]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용성은 경계상이 능견상에 의지해 생성되기 때문에 보는 것을 떠나면 경계가 없어진다고 첨언하며 삼세에 생사해결의 단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계속해서 여섯 가지 거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데, 주객의 형성으로 인해 분별하는 마음작용[智相]이 일어나 호불호를 지어내게 하고, 분별을 지각하

50) 용성 역주, 현석 옮김, 『대승기신론』,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4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631.

는 마음으로 인해 망념을 끊임없이 일으켜[相續] 고락을 감각하게 한다. 또한 고락심이 마음에 탐욕을 일으켜 집착하게 만들고[執取] 언어적 관념을 형성[計名字相]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업을 생산하게 한다. 결국은 업력에 결박되어 갖가지 고통을 받게[業繫苦]되는데, 죽음의 고통 또한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교리에 비추어 생사를 생각해보면 죽음의 원출처는 무명인 것이다. 무명의 발동으로 인해 죽음이 생겨나며 또한 죽음에 이를 때 동반하는 괴로움들 즉, 신체적 고통, 불안, 공포, 슬픔, 후회와 같은 심리적 고통 또한 발생하는 것이다.

무명에서 ‘무’를 걷어내 명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견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견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명이 만병의 원인임을 지목하고 생사문제를 해결하라는 적극적인 조치인 것이다. 용성은 생사와 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각본연성은 생사가 없나니 근본 지혜로 대각의 진리를 요달하였으므로 ‘견성(見性)’이라고 말하고, 또 대각의 자체에서 이치를 요달하여 일체 만법을 무소불통하고 무소부지하나니, 근본 지혜로 이치를 요달하고, 후득지혜(後得智慧)로 일체 사법을 요달함으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하느니라. 대각의 본체는 원래대로 깨치고 증(證)한 것이 아니니, 이 깨치고 증한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원래부터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이 오로지 ‘분별’과 ‘식심(識心)’으로 생사를 면하려고 하나니 본래 대각본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단코 생사를 면치 못하리라.<sup>51)</sup>

대각본연성의 차원에서 보면 본래 삶과 죽음은 없다. 그 본연성을 밝게 비추어보고 통달한 것이 견성이며 견성을 이루고 대각본연성의 차원에 들어가면 본래부터 죽음과 삶은 있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일반의 사람들은 생사의 흐름 안에서 죽음을 면하려 하지

51) 용성 저, 정혜원 옮김, 앞의 책, p.468.

만, 생과 사를 ‘분별’하고 있는 마음의 차원에서는 결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용성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업과 습기, 그리고 업과 습기를 생산하는 동력인 무명이 생사를 만들어내는 원인임을 보았는데 이는 교리적 측면이다. 다음의 절에서는 생사해결에 대한 대각사상의 실천적인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생사해결의 수행방법

앞서 생사문제 해결을 위한 교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생사문제 해결에 관한 실천적 측면을 살펴보려한다. 실천적 측면은 곧 수행을 말하는데, 용성은 거의 모든 저술에서 생사해탈을 위한 수행을 강조했다. 특히, 「수심론」, 「용성선사어록」에는 용성 특유의 수행 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죽음을 중심주제로 삼고 임종시의 수행을 언급한 대표적인 저서는 「임종결」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생사해결과 연관된 수행법을 알아보겠다.

「임종결」에서 용성은 ‘임종시에 생사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란 제자의 질문에 생사를 면하려면 살아있을 때 염불, 참선, 간경, 주력 등을 일심으로 수행해야 임종시에 공부했던 습기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용성은 생사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며, 평소애 닦지 않으면 임종이 닥쳤을 때 거의 모든 이들이 생사의 흐름 속에 떨어진다<sup>52)</sup>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설한다.

평생 공부한 것은 죽을 때 쓰는 것이니, 만일 임종시에 공부한 것을 잊으면 천당이나 지옥에 업을 따라 가게 되느니라. 귀천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임종시에 는 개, 소, 말, 고운 여자 등 생전에 좋아하던 것이 좋게 보여서 애심과 음욕이 일어나 자연히 자신의 업을 따라 생사윤회에 떨어져 고통 받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이 나타나도 그것

52) 앞의 책, p.470.

을 쫓아가지 말 것이다. ... 일심으로 일체 경계를 따라가지 말고 보고 듣고 이는 놈과 마음 근본을 반조(反照)하되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근본을 돌이켜 다만 ‘어디서 나오는가?’ 이 같이 하면 생사를 해탈하리라. 다시 권하는데 한 생각이라도 일체 경계를 따르지 말고 ‘대체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와 같이 하면 마음이 경계를 따르지 않으므로 자연히 전도상이 없어지고 전도상이 공함으로 해서 업식이 공해지고 업식이 공함으로 해서 마음이 공해지고, 마음이 공하므로 세계 전체가 공하고, 세계일체상이 공함으로 해서 모든 생사에 영원히 업력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생사 대사를 해탈하느니라.<sup>53)</sup>

용성은 죽음이 닥쳤을 때만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평상시에 염불이나 참선, 주력 등을 수행한 습기의 힘이 임종시에 발현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습기의 힘을 토대로 죽어가는 순간에 떠오르는 모든 모습과 경계를 따라가지 말고, ‘이러한 모습과 경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란 생각을 놓지 않으면 업식이 맑아지고 마음이 공해지며 세계일체상이 공해져 생사해탈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용성은 계속해서 수행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확철대오하여 생사를 면코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냐? 임종시에 생사를 면하고자 하면, 평상시에 화두를 참구하여 의정(疑情)을 큰 불덩어리 같이 만들어 단지 의정뿐이 없게 하라. 다른 생각이 없어지면 인연을 따라 혹 생전에 깨치는 사람도 있고 설사 깨치지 못했어도 임종시에 매(昧)하지 않으면 생사를 해탈하리라. ... 임종시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정신을 굳게 하여 일체 경계를 따르지 말고, 석가모니께서 친히 말씀하신 근본 화두를 의정할 것이며, 단지 의정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크게 생사를 면하리라. 임종시에 다만 화두를 의정하여 생각하되, 석가모니께서 인천(人天) 백만억 대중이 위요하신 가운데 가섭존자를 불러, 앉으신 자리에서 반자리를 나누어[分半座] 가섭을 앉게 하

53) 앞의 책, p.470.

시니, ‘무슨 뜻으로 세존이 반자리를 나누어 주셨는가?’ 이 화두를 단지 의정만 하면 생사를 해탈하리라. … 임종시에 단지 의정하되 세존께서 인천 백만억 대중 가운데서 꽃을 들어[拈花] 가섭에게 보이시니 ‘무슨 뜻으로 꽃을 들어 보이셨는가?’ 단지 의정만 하면 생사를 해탈하리라. … 세존께서 열반하실 때에 사라쌍수 간에서 가섭에게 관 안에서 두 발을 내 보이셨으니 무슨 뜻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는가?[標示雙扶] … 평상시에 반드시 의심하고 임종시에 화두를 의정하여 모든 분별을 따르지 않으면 생사를 면하리라.

용성은 삼처전심(三處傳心)을 들면서 임종시의 생사해탈에 있어 중요한 것이 ‘의정(疑情)’임을 말하고 있다. 의정은 의심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두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화두참구에 있어서 의정은 깨침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의정은 수행과정 중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심리적 현상으로서 생사문제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의식과도 연관된다.<sup>54)</sup> 용성은 「선한문역선문촬요」에서 ‘무엇을 일러 의정이라 하는가? 태어남에 있어 어디에서 움을 알지 못한다면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죽음에 있어서 어디로 감을 모른다면 가는 곳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사관을 타파하지 못하면 의정이 몰록 발하리니, 홀연히 하루아침에 의단을 타파하면 생사가 부질없었던 것을 알게 된다.’<sup>55)</sup>고 말했는데 의정 자체에 이미 생사문제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용성은 생전의 수행을 통해 의정을 불덩이처럼 만들어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작용을 미리 태워놓으면 깨치지 못했어도 임종시에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종결」에서 용성은 “생사를 면하고자 하거든 임종시에 눈, 귀, 코, 혀, 몸, 뜻에 모든 분별이 경계를 침입할 때, 그 분별하는 놈을 돌이켜 마음이 모든 인연을 쫓아가지 않고

54) 이상호, 「의도적 의정과 주체적 의정의 구분으로 살펴본 지눌의 깨달음 과정 검토」, 『불교학연구』 25호, 불교학연구회, 2010, pp.84-85.

55) 용성 편저, 법상 옮김, 「선한문역선문촬요」,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권,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p.117.

마음과 경계를 텅 비워 혹(惑)되지 않게 잘 닦으면 임종시에 업력을 받지 않고 생사를 해탈한다.”고 말한다. 이는 선업과 악업이 죽음 이후에도 영향력을 미치듯 수행업 또한 생전에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임종시에 그 힘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과 연관해서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이 염불, 참선, 간경도 많이 하고 모든 착한 업을 지었지만, 임종 시에 병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받는 자도 있어, 죽을 때 천지 분간을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니 의심할 것이 없다. 그것은 육체에 관계된 것이어서 비록 정신이 혼암(昏暗)하나 육신이 해탈한 뒤에는 본정신이 즉시 돌아와 그전에 참선, 염불, 간경하던 정신이 되돌아와서 즉시 도를 닦던 선업으로 좋은 세계로 가게 되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정신이 혼몽하여 천지 분간을 못하다가 약 기운이 다하면 정신이 다시 예전과 같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그와 같아서 세상 사람이 참선, 염불, 간경을 하다가 임종 시에 비록 정신이 혼암하여 아무 것도 몰랐을지라도 육체를 여의는 동시에 본정신이 예전과 같이 돌아와서 생사를 여의게 되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다만 육체에 병이 든 것이지 마음에 병이 들지 않은 까닭이니라.<sup>56)</sup>

생사해결은 깨달음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포함한 일체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마음과 외부경계의 작용에서 완전히 초탈해 윤회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생전에 수행을 하더라도 죽기 전에 깨닫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인가. 용성은 위와 같이 생전에 참선, 염불, 선업을 닦은 자도 임종시에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마치 약기운에 취해 혼몽했던 사람이 기운이 없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오듯, 수행업과 선업 또한 육체를 여윌과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생사대사에 있어서는 육체적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용성은 대각의 가

56) 용성 저, 정혜원 옮김, 앞의 책, p.475.

르침을 통해서 깨침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과정으로서의 수행이 덧없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V. 나가는 말

서두에서 말했듯이 대각은 도처에 편재하는 법성, 정각, 석가모니불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법성에 초점을 두고 대각사상의 생사관에 대해 탐색했다. 먼저 대각의 입장에서 죽음은 호흡의 정지 및 사대(四大)의 붕괴라는 육체적 기능의 정지와 함께 유가의 견해를 빌려 혼백의 분리라고 정의되었다. 그러나 용성은 유가의 관점은 생멸심의 차원에 있다고 비판하며 단멸론을 부정하고, 육체는 생멸하나 진명심은 생멸하지 않는다고 두 가지 차원에서 죽음을 정의했다.

다음으로 대각사상에 나타난 윤회, 사후생의 상속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며 생사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용성은 윤회가 업력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언급하며 내생처는 죽은 자의 체온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체온이 하강해 사라지면 악도에 가고, 상승해 사라지면 선도에 나지만 체온의 흐름이면에는 식의 작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식이 영묘하면 상승하고, 탁하면 하강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식의 작용은 생전의 습기에서 연유한다고 설명한다. 사후 생이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육신이 소멸해도 정묘색근(淨妙色根)이 상속의 의지처가 되며 아뢰야식을 토대로 선악의 종자가 이속되고 중음신이 종자들을 품고 상속이 계속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대각의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망한 것이며 결국은 무명의 작용이므로 중시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생사해결에 관한 교리적 배경과 수행법을 살펴보았다. 용성은 생사의 원인은 난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으로 인한 업력이라고

지적하며 업력은 무명에서 연유한다고 언급한다. 그는 무명의 작용과정을 기신론의 구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고, 무명에서 명(明)으로의 변환을 통해 생사가 없는 대각본연성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방법은 「임종결」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용성은 평상시에 참선, 염불, 주력 등을 수행한 업력이 임종시에 그 힘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생전의 수행한 습기의 힘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일어나는 갖가지 경계상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란 사유를 통해 경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직시하면 생사해탈이 가능하다고 설한다. 그리고 죽기 전에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과정’으로서 행한 수행은 덧없이 사라지지 않으며 임종을 맞이할 때 힘이 발현될 것이며 또한 임종 후에 깨달음에 도달할 양분이 될 것이라 확언했다.

용성은 일제하 암흑기 속에서 곳곳이 수행하며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설립해 대중이 경전을 읽기 용이하게 번역했다. 또한 지독한 고난기 속에서 지침과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저술들을 펼쳐내면서도 독립을 위한 활동에도 투신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생사가 대사임을 실감하며 죽음이 코앞에 도사리고 있던 시기였을 것이다. 그 속에서도 대각을 강조하며 생사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던 그의 음성은 아직도 여러 저서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 참고문헌

-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 29)
- 『瑜伽師地論』(大正藏 30)
- 『禮記』 「祭義」
- 『周易』 「繫辭」
- 『增一阿含經』(大正藏 2)
-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미치하타 료오슈우 저, 최재경 옮김, 『불교와 유교』, 한국불교출판부, 1991.
- 동산혜일 찬집, 금천 옮김, 「용성선사어록」,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용성 저, 한성자 옮김, 「심조만유론」,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용성 역주, 현석 옮김, 「대승기신론」,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4,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용성 저, 김종인 옮김, 「대방각원각경」,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4,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_\_\_\_\_, 신규탁 옮김, 「귀원정종」,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_\_\_\_\_, 신규탁 옮김, 「청공원일」,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1,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_\_\_\_\_, 이성운 옮김, 「대각교의식」,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_\_\_\_\_, 이재수 옮김, 「각해일륜」,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_\_\_\_\_, 정혜원 옮김, 「임종결」,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_\_\_\_\_, 한제인 옮김, 「오도의 진리」,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 \_\_\_\_\_, 범상 옮김, 「선한문역선문촬요」,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 『백용성 대종사 총서』 2,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2016.

남상욱, 「뇌사와 심폐사 그리고 장기이식」,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2, 대한소아과학회, 2009.

이상호, 「의도적 의정과 주체적 의정의 구분으로 살펴본 지능의 깨달음 과정 검토」, 『불교학연구』 25, 불교학연구회, 2010.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大覺證得과 點檢에 관한 연구」, 『大覺思想』 11, 대각사상연구원, 2008.

## Abstract

### A Study for Life and Death Perspectives of Daegak(大覺) Thought

Moon, Hyun-gong

(Institute of EBTC, Dongguk University)

Yongseong(龍城), one of the representative Seon(禪) masters of modern Buddhism, emphasized Daegak(大覺) thought and established the theory and practiced it in reality. Daegak means beopseong(法性), jeonggak(正覺), and the Buddha.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Beopseong and searched for life and death perspectives of Daegak Thought.

First, I looked at Daegak's definition of death. In Daegak Thought, death is defined as the separation of the hun-p'o(魂魄) by a view of Confucianism, including the halting of the physical function of breathing arrest and the collapse of sadae(四大). However, Yongseong defines death as taking the two dimensions of saengmyeolsim(生滅心) and jinmyeongsim(眞明心) and denies both of annihilationism(uccheda-vādin) and eternalism(śāśvata-vāda) so that the body is born or disappears but jinmyeongsim is not.

Second, I looked at the background of life and death by looking at Daegak Thought's reincarnation, and the inheritance process after birth. Yongseong says that reincarnation occurs because of karma, and that the endogenous life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action of body temperature and vijñāna. He explains that if body temperature goes down and disappears, it is born in evil destinies, when body temperature rises and disappears, it is born in good destinies, but vijñāna acts in the flow of body temperature. He said, when the body is destroyed in the process of inheriting life after death, jeongmyosaekgeun(淨妙色根) becomes the

foundation of inheritance, and based on ālayavijñāna, the seed of good and evil is ripe and antarā-bhava inherits with seeds. However, Yongseong emphasizes that such processes are vanity in the ultimate view of Daegak and ultimately the function of avidyā.

Finally, I searched Daegak thought's perspective on the solution of death in theory and practice. Yongseong points out that the cause of birth and death is karma caused by habits, and the power of karma arises from avidyā. He explains the working principle of avidyā through *Dasheng qixinlun*(大乘起信論), and says that he must go beyond avidyā and into the world of Daegak without death. The practical aspect is centered on Yongseong's book, *Imjonggyeol*(臨終訣), which says that everyday practices exert their power when dying. Also, Yongseong said that through karma's power of practices, we could get nirvāna from life and death if we faced the causes of various appearances at the moment of dying. Lastly, he said that even if one did not achieve enlightenment before one's death, the power of practices will be manifested at the time of dying, and it is also the driving force behind achieving enlightenment after death.

#### Key words

Daegak(大覺) thought, Yongseong(龍城), Life and death perspectives, Death, Dying, Samsara, Nirvāna